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담 당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서휘원 팀장, 이성윤 부장, 최윤석 간사, 문규경 간사, 임정택 간사)

제 목 : [예고]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8월 31일)(총 2매)

보도일자 : 2023. 08. 29. (화)

배포일자 : 2023. 08. 29.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
-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2. 얼마 전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 통념과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지연시켜왔습니다. 이도 모자라 최근에는 거대 양당으로만 구성된 2+2 협의체를 통해 밀실 협상을 진행, 거대 양당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헌국민연대는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하고, 선거제도 개편 밀실 야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3. 식순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헌국민연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 발언1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발언2 정세욱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 ◆ 발언3 이정미 정의당 당 대표
 - ◆ 발언4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 발언5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 ◆ 기자회견문 낭독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강영봉 개헌국민연대 대표
 - ◆ 질의답변

* 식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